



좋아하는 과목으로 진로를 찾아라
김상호 지음

청소년 진로선택 고민 해답 제시

중고교 교실에는 '영포자'(영어 포기한 학생), '수포자'(수학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 '영포자', '수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대학을 갈 기망성이 없는 학생"이라는 의미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호 박사가 펴낸 '좋아하는 과목으로 진로를 찾아라'는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요 과목이 아니라도 사회, 지리, 역사, 생물 등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문과계열, 예체능계열, 이과계열로 나누어 해당하는 과목별로 어떤 학과와 연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멘트로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무등산
문영기 지음

시로 쓴 지난날들의 회한

남도 출신 문인들에게 무등산은 무한한 창작의 모티브가 된다. 광주 출신 문영기 시인에게도 무등산은 과거를 돌아보고 시간의 결을 되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다. 최근에 시인이 펴낸 '무등산'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내밀한 개인사의 고백을 드러내는 기제다.

'무등산' 연작 26편은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화해, 사모와 희망의 두 축을 상징한다. "새인봉 절벽 위에 눈물짓던 바람이/ 하얗게 피어난 영혼들을 어루만지며/ 장불재를 넘어갈 때/ 나와 함께 파울음을 토해내는 무등산"(무등산2'중에서)

시가 내재하는 회한은 추억이라 하기에는 무겁고 삶의 동력이라 하기에는 무기력하다. 시인은 "불혹을 훌쩍 넘기고서야 철이 들기 시작한, 부끄럽기만 한 지난날에 대한 회한의 시를 쓰게 했다"며 "숨이 다하는 날까지 무등산처럼, 풀잎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밝힌다. <문화의전당·9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불행한 화가' 고희 그림은 정신분열증의 산물?

별들도 이런 병을 앓았다

정진홍 지음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의 광기 어린 듯한 행동은 즉각 보도되었고 조소는 큰 불결을 일으켰고 동정은 대낮은 풀벌레소리만도 못하였다... 언론의 끈질긴 공격 앞에 노이로제에 걸린 대통령은 결국 강박신경증 환자가 되고 말았다. 이들 환자가 지니는 증상, 즉 남을 의심하고 시기하며 자신의 내부 갈등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가 닉슨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나 시저를 살해한 부르터스, 심지어 히틀러까지도 이 병으로 고생하였고 역사에 기록된 그들의 행동은 대사건으로 남아 있다." (본문 중에서)

루스벨트(소아마비), 처칠(폐렴), 아이젠하워(심장병), 도스토예프스키(간질), 브람스(간염)...



**슈베르트는 장티푸스로
세잔은 당뇨병으로 사망
세기의 별들 지병·죽음
의학적 관점서 풀어 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기의 정치지도자들과 예술가들은 어떤 질환에 시달렸을까? 그들을 괴롭혔던 병은 무엇이며, 이들의 업무와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유명 인사들의 생로병사를 다룬 의학 에세이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소아과의사 정진홍(70) 씨가 펴낸 '별들도 이런 병을 앓았다'는 정치인과 예술가들이 앓은 질병과 '죽음'을 의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에세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병상에 눕기도 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스타라 정치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남모를 질환을 앓다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저자가 유명 인사들의 질환을 소재로 책을 쓴 이유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별' 같은 존재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스타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 저자가 책에서 다룬 스타들은 정치와 예술 분야에서 나름의 흔적(공정적인 부정적)을 남겼던 이들이다.

"케네디는 어떤 병에 걸렸으며, 아이젠하워는 무슨 지병을 앓았을까 궁금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인 헤밍웨이와 고희는 말년에 어떤 지병을 앓았는지도 적잖은 의문이었다."

저자는 인생의 완결인 '죽음'을 세기의 정치가들과 예술가들이 어떻게 맞았는지 의학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다. 또한 특정한 질병이 정치인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끼친 영향도 면밀히 분석한다.

당초 이 책은 지난 81년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저자는 전남대 의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하며 필명을 날릴 만큼 글쓰기에 남다른 재질을 보였다. 지난 78년 '시와 시론' '시세계'로 등단한 이후에는 의사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최인미로소이다' 등과 같은 에세이집을 냈다.

"경쟁국 최고지도자의 건강은 주변국 정보기관이 가장 알고자 하는 고급 정보다. 대기업 CEO의 건강상태는 주식투자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고, 미술시장에

서 유명화가의 건강 정보는 그림의 미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책이 출간된 후 서울대 의대에서 '죽음학'을 강의하는 정현채(소아기내과) 교수가 참고 도서로 활용했다. 또한 계명대 의대와 경북대 의대에서도 교재로 참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 예술가들의 질환은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미국은 '죽음학'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천하다"며 관심을 환기한다.

"케네디는 공팔의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아디손씨병을 앓았고 인도의 간디는 54세에 맹장염에 걸렸다. 슈베르트는 장티푸스로 사망했으며 화가 세잔은 당뇨병으로 운명했다."

저자는 정치지도자들이 질환을 앓게 되면 정책 결정에 있어 완급을 가려야 하는데 조급한 나머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예술가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은 오히려 창작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던 반 고희의 그림에 자신의 질병이 투영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별'들도 나름의 지병이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남모를 아픔이 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우리들 삶이므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책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안목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싶다."

<하늬바람에 열풍다·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힘들고 고단한 인생에 '큰형들'이 주는 위안



세상의 큰형들
전성태 지음

소설가들이 펴낸 산문집은 술술 읽힌다. 에세이지만 출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작가 특유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이야기꾼의 관록은 소재를 버무려 감성을 절묘하게 입히는 데서 발현된다.

고흥 출신의 이야기꾼 전성태는 타고난 소설가다. 신동엽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유수

의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의 이야기의 뿌리는 전라도적인 정서에 젖음을 대면서도 도심의 아웃사이드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애정에 닿아 있다. 그렇다고 그의 소설이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한 것은 아니다. 때 이야기마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전성태가 펴낸 산문집 '세상의 큰형들'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에세이다. 5년 만에 새 문패를 달고 내용을 보충한 책에는 작가 특유의 감성이 깃들여 있다. 윤중석 화백의 그림까지 얹어져 읽는 맛과 보는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눈물이 그렇듯 그런 모든 세상의 큰형들"에 대한 헌사로 읽히지만, 사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

한 위안의 메시지다. "어머니의 목숨은 나날이 꺼져가고 있다. 이분이 더 이상 세속적인 의미에서 내 어머니가 아닌 것만 같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형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 불경을 저지른 자처럼 죄스럽다. 어머니를 향한 형의 절망감이 느껴질 때면 어머니를 지켜보는 일보다 마음이 아프다."

표제작 '세상의 큰형들'에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와 그 모친을 간호하는 형에 대한 애뜻한 심사가 담겨 있다. 글에서, 사람을 보는 눈에서 깊이와 겸허함이 느껴진다. 작가는 쓸쓸하고도 허망한 삶이지만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지막이 말한다. <난다·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1세기 민족주의가 이야기하는 문화 갈등



민족주의와 문화정치
최진우 엮음

전 세계에서 지역통합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민족주의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영토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동구권의 탈공산화 과정에서 표출했던 민족주의 정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극우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힘의 균형에 큰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21세기 민족 갈등에 대한 우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양대 평화연구소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민족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 분야 11인의 전문가와 국제 평화, 민주주의, 문화 산업이라는 소주제별로 민족주의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문화갈등의 양상을 연구하고, 그 5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한 '민족주의와 문화정치'를 펴냈다. 책은 특히 다문화와 정체성의 영역에 걸쳐 있는 민족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체성의 발전 양태를 살펴본다.

<한울아카데미·3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광

대산프리모가발